

페더러, 은퇴 경기서 뜨거운 눈물... “완벽한 여정이었다”

레이비컵 테니스 복식 출전
메이저 최다승 등 기록 보유
경기 후 조코비치 등과 포옹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은퇴 경기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AP/뉴시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은퇴 경기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페더러는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O2아레나에서 치러진 레이비컵 테니스 대회 첫날 복식 경기에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한 조로 출전해 프랜시스 티아포-잭 속(이상 미국) 조에 1-2(6-4 6-7(2-7) 9-11)로 패배했다.

레이비컵은 팀 유럽과 팀 월드가 대결하는 남자 테니스 대회이다.

단식 최종전이었던 지난해 7월 Wimbledon 8강에서 후베르트 후르카치(폴란드)에게 0-3(3-6 4-6 4-6)으로 졌던 페더러는 이날 복식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날 복식은 페더러의 현역 마지막 경기였다.

페더러는 경기 후 함께 출전한 나달을 비롯해 응원에 나선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앤디 머리(영국) 등과 포옹했다.

그는 “완벽한 여정이었다. 한 번 더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닌, 행복한 날이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페더러는 테니스 역사를 쓴 레전드다. 2003년 Wimbledon에서 첫 메이저 단식 정상에 섰고, 2008년 호주오픈에서 남자 테니스 사상 최초로 메이저 단식 20회 우승에 성공했다.

메이저대회 최다 승수(369승)도 페더러가 갖고 있다. 또 2004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4년 6개월간 237주 연속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며 이 부문 신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2009년엔 프랑스오픈 정상에 오르며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로드 레이버(1969년 호주), 앤드류 애거시(미국 1999년)에 이어 3번째로 남자부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Wimbledon에선 남자 단식 최다 우승(8회) 기록을 세웠고, US오픈(5회)도 최다 우승 공동 1위다.

최고령 단식 세계 1위(36세10개월) 기록도 페더러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유재석, 14년 만에 마라도 짜장면집 다시 찾아

“다 사라지고 변하지만,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코미디언 유재석이 14년 만에 마라도 짜장면집을 다시 찾았다.

유재석은 24일 방송된 MBC TV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지난 2008년 ‘무한도전’ 촬영 당시 찾았던 마라도에 있는 짜장면 집을 재방문해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보여 줬다.

14년 전 마라도에 왔을 때 찾던 좁은 다시 춘 유재석은 짜장면 집 사장님을 다시 만나 반갑게 물어안았다.

유재석은 14년 전 사진을 함께 찍었던 4살 아기를 다시 만나기도 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이야기는 유재석과 악수를 나눴다.

유재석은 “14년이 지났는데도 이 가게가 그대로 있다는 게 참 좋다” “다 사라지고 많은 것이 변하지만,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코미디언 유재석이 14년만에 마라도 짜장면 집을 다시 찾았다.

뉴시스

효린, 日공연서 열창... “막강한 라이브 퀸”

‘오드 브릭 페스티벌 2022’ 출연... 팬들 매료시켜

가수 효린(사진)이 일본 팬들을 매료시켰다.

효린은 지난 23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일본 뮤직 페스티벌 ‘오드 브릭 페스티벌 2022’에 출연했다.

이날 요코하마 바닷가 바로 앞 야외 스테이지에 등장한 효린은 ‘블루 문’(Blue Moon)으로 포문을 열었고 ‘세이 마이 네임’ ‘바디 토크’를 연이어 열창했다.

이어 ‘레임 로우’ ‘노 생스’ ‘소 왓’을 불러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일본 현지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효린은 9월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케이콘 2022 사우디 아라비아’에 출연한다.



투타 맹활약 오타니, 메이저리그 최초 ‘30홈런·200K’ 위업

투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28·LA 에인절스)가 메이저리그(MLB)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오타니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필드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투수 겸 3번타자로 출전했다.

이 경기 전까지 196삼진을 잡아챘던 오타니는 이날 5회까지 7개의 삼진을 추가했다. 이날 오타니는 한 시즌 탈삼진 200개를 돌파했다. 탈삼진 200개라는 기록과 함께



투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28·LA 에인절스)가 메이저리그에서 30홈런-200탈삼진을 달성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올해 무려 34개의 홈런을 곁들였다. 30홈런-200탈삼진은 역대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만 도달한 기록이다. 또한 일본인 투수 중에서 노모 히테오,

마쓰자카 다이ске, 다르빗슈 유에 이어 네 번째로 메이저리그에서 200탈삼진을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올린 박찬호는 200탈삼진을 기록한 시즌은 두 차례밖에 없고, 류현진은 한 번도 없다.

이날 오타니는 5이닝 3피안타 6볼넷 7탈삼진 2실점 투구로 승리투수가 됐다. 3경기 연속 승리를 챙긴 오타니는 시즌 14승(8패)을 수확했다.

오타니는 3-2로 앞선 7회초 타석에서 1타점 내야안타를 때려냈다. 9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 시즌 타율을 0.271로 유지했고, 시즌 90타점 고지에 올랐다.

60th 한국자산화
가치관리공공기관

같이 키워온 60년,
가치 키워갈 100년!

대한민국 으랏차차

착

캠코 와 함께 희망도 기회도 **착착착** 만나세요

도전하는 기업에겐 **기회도착!**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희망안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장착!**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